

기고

리튬이온배터리, 편리함 속의 불씨를 경계하자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 보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나주 노안면에서 트럭에 적재된 드론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고온·밀폐된 보관환경 속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빠른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길거리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 충·방전 효율성이 뛰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과충전, 외부충격, 부적절한 보관으로 사용 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일상 가까이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하며 이 중 전동 킥보드 485건(77.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에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정품 충전기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저가 충전기 사용은 위험을 키운다
 2. 충전 관리 - 충전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충전 장소 - 통풍이 잘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충전한다. *현관문, 비상구 근처 충전금지(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4. 외부 충격 주의 -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임의 개조·수리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보관 -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그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 사실 노화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필연적인 한 과정이다. 요절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 때문에 노인복지대책을 잘 세운다는 것은 현재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인 비노인층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여가문화 시행해야

때문이다.

현재 이에 비해 출산율은 계속 저하 중이다. 이는 곧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사회보장비 부담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국가적인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그 대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절대적 빈곤은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각종 복지법을 제도화해 가고 있기에 소화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 중에서도 노인여가문화부재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은 경제적 수입의 상실, 지위와 역할의 상실, 사회참여 기회의 상실, 보람의 상실 등 수많은 상실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다. 유병율 또한 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즉, 오늘날의 노인들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노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노인들에게도 바람직하겠지만 이들을 모시는 가정에도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

라 준 노인층이나 그들을 부모로 두고 있는 가정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노인들이 여가문화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길 바란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가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비컬스도 '생활'과 '여가'를 구별하지 않고 '생활자체'를 '여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젊은 시절의 생활이 '일' 그 자체인 것처럼 노년기의 '여가'기간은 그것이 곧 '생활자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후생활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노인들이 원하고 즐겁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창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현재에도 일부 노인복지관 등 노인관련기관과 단체 등을 통해서 노인이 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여가문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

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져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

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음력 7월 21일)

<p>48년생 연연히 디르다. 비싼 값을 받아내자. 60년생 기던 걸음 멈추고 뒤로 돌아가지. 72년생 순수가 아. 나. 여. 도. 내. 서. 보. 자. 84년생 흥만 지씨는 노동 가치를 더해보자. 96년생 분위기를 맞추고 흐름을 따라가자.</p>	<p>49년생 서두르면 손해 느긋함을 가져보자. 61년생 꿈으로 했던 목표 손으로 잡혀진다. 73년생 소박하고 포근한 축제를 받아보자. 85년생 노력과 성과 무용담이 펼쳐진다. 97년생 극적인 반전극은 반대로 간다.</p>	<p>50년생 간짜와 만년면 발품을 팔아보자. 62년생 아쉬움도 미련도 바람에 실어내자. 74년생 새식구 합류 반기음이 더해진다. 86년생 낭비 없는 살림살이 고아에게. 98년생 처음 본 인연과 사랑을 만들어보자.</p>
<p>51년생 기쁨이라 쓰여진 소식을 들어보자. 63년생 경사 중의 경사 민체가 불려진다. 75년생 경의는 살아있다. 약자 편에 서보자. 87년생 까칠한 반대거절임을 알아내자. 99년생 시간 맞추는 약속 점수로 매겨진다.</p>	<p>52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옥석을 가려내자. 64년생 쓴술이 달아지는 호사를 누리보자. 76년생 주고받는 계산 정으로 해야 한다. 88년생 우물한 교만 회초리를 불러낸다. 100년생 방법을 알았으면 실천으로 옮겨보자.</p>	<p>53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이라 단정하자. 65년생 제대로 갖춰야 춤추고 노래하자. 77년생 울타리 밖에서도 가장 노를 해보자. 89년생 한결같은 믿음 뿌리를 내려보자. 01년생 멋으로 하지마라. 진심만 보여보자.</p>
<p>54년생 옛. 나. 기는 계획 빠르게 돌아서자. 66년생 주머니 든 돈 하나 어깨도 높인다. 78년생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가져보자. 90년생 잘하려 하지마라. 꾸준히 가야 한다. 02년생 현실적인 목표 차선으로 돌아서자.</p>	<p>55년생 평화로운 순간 그림으로 그려보자. 67년생 고생해야 했거 대담 조차 못 듣는다. 79년생 불면한 상황에서 최고의 찾아보자. 91년생 무거운 책임감 한숨이 깊어진다. 03년생 청출어람 솜씨로 칭찬을 받아내자.</p>	<p>56년생 우렁찬 목소리에 은퇴도 미루진다. 68년생 깡깡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80년생 피하고 도망가는 약자가 되어보자. 92년생 방정한 거절로 원망을 들어보자. 04년생 금쪽같은 조인 실천으로 옮겨보자.</p>
<p>57년생 꿈으로 했던 순간 눈물도 함께 한다. 69년생 다시 와 온 것애 귀힘을 지켜내자. 81년생 같은 처지 슬픔 서로에게 의지하자. 93년생 변함 없는 초심 지키고 아껴내자. 05년생 필요한 성장 아무지게 받아내자.</p>	<p>58년생 씨뿌려 얻은 결실 부자가 되어간다. 70년생 만만하다 병심 후유증이 크게 온다. 82년생 혼자만의 육심 친구를 잃어간다. 94년생 정성을 더해가야 힘이 된다. 06년생 미숙한 청춘이다. 꺾고 더듬어보자.</p>	<p>47년생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보자. 59년생 고미운 이웃이 급한 불을 꺼준다. 71년생 주인이자 손님인지 구분해야 한다. 83년생 방정한 평가 누계감을 받아내자. 95년생 서두르면 준비 물음표가 그려진다.</p>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든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